

겁 없는 녀석들



나날이 신기록

6.2(토) 시화 소망공원에서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체육대회가 열렸다. 지회는 매년 이맘때 전조합원 체육대회를 했다. 매년 지부 사업장들이 일부 참가했는데 올 해는 달랐다. 지부 각 사업장 40여 명이 인지에 힘 주자며 선물과 봉투를 들고 달려왔다. 조합원과 가족들도 120여 명이나 모였다.

인지는 2009년 4개월 동안 직장폐쇄에 맞선 투쟁으로 세운 지회다. 복수노조 하 소수노조로 교섭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10년 간 탄탄한 조합활동, 끈끈한 관계로 94명이 자력현장을 일궈왔다. 40개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인지 그룹은 올 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기본급 인상 대신 '임시수당'을 만들어 땀뻑했다. 임시수당 준 후 기업노조 임금협상이 타결 되면 소급분에서 임시로 준 건 차감한다. 이대로라면 18년 근속자도 내년엔 임시수당 받을 판이다. 지회는 68일차 출근 투쟁 중이다. 하루하루 투쟁을 이어갈수록 매일이 신기록이다. 올 해 체육대회에 지부 각 사업장이 특별히 마음 담아 많이 모인 이유다.

미래 위한 노조

1년 안 된 지회도, 30년 된 지회도 처음 인지 체육대회에 와 보고 모두 놀랐다. 신생지회 한 간부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인원은 적지만 열기로 모든 걸 압도하네요"라고 했다. "우리도 다음에 저거 하자"하며 많이 배워갔다. 두원정공 간부들은 "와 인지가 투쟁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 진짜 잘 논다. 지부 체육대회 인지가 맡아서 해도 진짜 잘하겠다" 했다. 재미도 재미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훌쩍 자란 아이들이다. 숫자도 많이 늘었다.(아래 왼쪽 사진) 한 간부는 "소수노조지만 현장의 가장 큰 목소리로, 교섭권 없어도 겁 없이 투쟁하는 저력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애들 보니 알겠다"고 했다. 소수노조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당장 오늘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전체 조합원과 가족, 미래세대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조라고, 멋지다고 했다.

인지에 힘 박

4일(월) 지부 운영위는 인지투쟁에 힘 실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후 규탄하는 투쟁에 실효성이 있는가, 교섭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투쟁할 것인가 고민할 과제가 많다. 지회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지부는 지회와 함께 투쟁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파업 등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지부는 7월 임단투 동력을 인지에 집중하는 기획까지 고려하며 동력을 모아하기로 했다. 지회는 6월 첫 주부터 매주 화요일 공장 밖으로 투쟁을 확대하고 지부가 지원한다. 지부 각 사업장 또한 안산권 사업장이 매일 출투에 결합하고 있는 가운데 연대 폭을 넓히는 방안을 준비한다.

겁 없는 녀석들 곁에 뒷배지부

겁 없는 녀석들은 더 있다. 5.26(토) 신생 현대모비스평택지회도 2월 설립 후 처음 전조합원 체육대회를 열었다. 조합원과 가족 240여 명, 지부 각 사업장 간부들과 모비스 화성, 울산, 광주, 위아 광주, 안산, 평택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처음이라 어설픈 게 많았지만, "가족에게 좋은 추억 남겼다. 재밌었다"고 한다. 지회 한 간부는 "선배 사업장들 엄청 많이 오셔서 든든한 뒷배 느낌. 뒤풀이 가서 얘기해보니 금속노조가 탄탄하다는 생각 들었다. 할 수 있다는 확신 생겼다"고 했다. 주말에도 쉬지않고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힘 실는 뒷배지부가 언제나 겁 없는 녀석들 곁에 있다.





7차 집단교섭이 5.31(목) 두원정공에서, 8차 집단교섭은 6.7(목) 신한발브에서 열렸다. 7차에서는 현대케피코, 두원정공의 바뀐 회사 교섭위원들이 인사했다. 현대케피코의 합의내용 번복 관련 새로운 교섭위원이 논란없이 해결할 것, 두원정공 회사 어렵지만 교섭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8차에는 삼화 사측이 처음으로 참가했고, 썬텍의 회사 교섭위원이 바뀌어 인사했다.

7차 교섭 전 주, 회사가 워크숍을 한다고 해 한 주 교섭을 쉬었다. 워크숍 후 7차에서 회사가 1차 제시안을 냈다.

금속노조 통일요구(▲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상사·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 ▲성폭력 예방과 금지 등)와 **임금은 제시안이 없다.**

지부 공동요구안(▲산보위에 금속노조 및 전문기관 참여, ▲2년 1회 정기검진,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불가)에는 **현행법 수준 안을 냈다.** 노조는 “고민할 여지 없는 안이다. 정회하고 추가 안을 낸다면 더 교섭하고, 아니면 끝내자”고 했다. 회사는 “통일요구안은 중앙교섭에서, 임금은 각 사업장 조건에 따라 추후 제시, 정기검진은 각 사별 격차 커 의견 좁히기 어렵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존 합의로 해결 가능하다”

투쟁 달군다

고 답했다. 노조는 “하던대로 하고, 관련 법 따르려면 굳이 요구했겠나. 더 나은 조건을 만들자”고 했다. 8차에서도 회사는 추가 제시안이 없다고 했다.

정구양 지부장은 “중앙교섭 회사 제시안(금속산업 최저임금 7,880원-280원 인상 등) 노조 요구와 격차 크다. 금속노조는 6.27 조정신청 계획이다. 우리는 갈등을 원치 않지만, 싸워야 한다면 피할 생각도 없다. 경기지역 사용자들 적극적으로 안 내고 노력해달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7월 18~19일 1박 2일 상경투쟁 등 노사공동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8차 교섭에서는 썬텍 회사에 경고했다. 썬텍은 작년 대표 이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어렵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바뀐 경영진은 단체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노사가 어렵게 단협 맺은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나. 경영정상화 위해 모든 노동자가 애 쓰고 있다”며 소송 취하를 정중하게 요청했다.

두 차례 모두 교섭을 마친 후에는 현장순회를 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만나는 조합원은 언제나 반갑고 든든하다.

◀ 썬텍지회는 7일(목) 첫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VIVA! 자력현장 ② 대원안산지회 편

‘비바, 자력현장’은 ‘비결은 바로바로 자력현장’의 줄임말, ‘만세! 자력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지부 모든 사업장의 크고 작은 자력현장 노하우를 연재합니다.

대원산업 조합원들은 자동차 시트를 만든다. 안산은 기아소하리, 평택은 기아 화성공장에 납품한다. 회사는 하나의 법인, 지회는 안산·평택에 각각 있다.

30살 대원안산지회 간부들은 20~30대로 여느 신생사업장과 비교해도 젊다. 상집 중 1명 빼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노조의 요구로 정규직이 된 이들이다. 젊은 신입조합원들이 노조 안에서 함께 하고, 간부 세대교체를 하는데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 중 ‘단협공부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협공부팀(오른쪽 사진)은 말 그대로 신입 조합원들이 단협 조항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팀이다. 선배 간부 1명이 한팀을 맡아 권리를 알려주고, 권리를 위해 싸워준 지회 역사를 들려준다. 아무래도 머리 아픈 공부보다는 공부 후 끈끈함 다지는 뒤풀이가 좋다. 선배들은 “공부하고 나면 벌써 몇십 년 된 조합원 같아. 너무 머리만 크는 거 아닌가 걱정”이라며 너스레를 떨지만 뿌듯한 눈치다.

‘노조’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익숙한 젊은이들이 편하게 어울리도록 **가족처럼 모임, 동아리모임**도 재밌게 많이 했다.



매월 5만원 씩 걷는 **투쟁보험**은 석 달 넘게 임금 못 받고 투쟁해도 걱정 없을 정도로 쌓였다.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자력을 바탕으로, 매년 임단협 타결 후 5만원 씩 걷어 힘이 필요한 사업장에 **투쟁기금** 보탠다.

30년 선배들과 애어른 후배들이 함께 지부의 든든한 뒷배가 되자는 마음을 쌓고 나누는 게 자력현장 비결이다.